

파송교회: 광복교회(도서선교회) 파송단체: 한국해외선교회(GMP)

연 락 처: 070 -4067-2491/ obit92@hanmail.net

수아의 졸업 그리고 가족이야기

수아가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졸업 식때문에 수아는 예쁜 드레스를 하나 샀고 저희는 예쁜 가족사진을 하나 가지게 되었 습니다.





<수아의 졸업과 세례>

지난 몇 달 수아에게는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부활주일 수아는 저에게 소망교회 학생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딸에게 선교지에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뭉클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체육시간에 왼쪽 눈두덩이가 찢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왼쪽 눈 위로 12바늘을 꿰매야 했는데 눈을 다치지 않음에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딸의 눈 언저리의상처를 볼 때 마다 마음이 상합니다.

변화를 준비해야하는 소망교회

소망교회에 대한 고민과 기도제목이 많습니다. 소망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은 대부분이 대학을 가거나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대학의 학사일정은 주말까

지 일정하지 않아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로 혹은 찬양단으로 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감사한 것은 신용은 선교사님 가정이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교지의 교회가 현지인 중심이어야 함을 생각할 때 새로운세대를 일으키는 것에 대한 숙제가 소망교회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망교회가정체되어가는 모습은 또 저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이러한 취지로 2월초 음악교실을 열었는데 시작은 16명 정도의 아이들이었지만 지난주 발표는 3명의 아이들만 참석하였습니다.







<블랑카 선교사님과 파울리의 졸업>

선교지를 바라보는 시선과 선교이론들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선교사가 직접 경험하고 느끼는 선교지의 교회에서의 상황은 때 때로 선교사를 좌절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한국교회의 분위기속에서 자란 한 국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의 기



파송교회: 광복교회(도서선교회) 파송단체: 한국해외선교회(GMP)

연 락 처: 070 -4067-2491/ obit92@hanmail.net

준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잡은 채 선교지의 교회도 그러해야 한다는 강박감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지나 봅니다.

그러나 금요일 저녁 가정교회 모임은 언제나 저에게 새 힘을 줍니다. 가정교회 모임과 그 속에서 자라가는 모습, 겉으로 볼때는 연약해 보이지만 말씀을 의지하고 고민하고 신뢰하고 소리 내어 성경을 읽어내려가며 저에게 질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교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망교회에 대한 여러가지 생각이 교차할 때 하나님께서 블랑카 선교사님이 소망교회를 연락도 없이 방문케 하셨습니다. 블랑카 선교사님은 소망교회가 개척될 때 함께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은퇴 후 미국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소망교회에 깜짝 방문하셔서 특별히 저희 가정을 위로해주시고 성도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블랑카 선교사님은 미국에 계시면서 저희 가정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팀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용운 선교사 가정이 와서 함께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 분의 신실하심을 본다고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운 몇 달을 보냈는데 블랑카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희가정과 소망교회가 격려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팀 사역 그리고 문화원 사역의 준비

선교지에서 팀사역이라는 정의는 항상

모호합니다. 그렇지만 신용운 선교사님 가 정과 저희는 팀으로 함께 있습니다.

ACTS팀입니다. 사도행전의 의미를 가집니다. 신용운 선교사님 가정이 선교사 후보생으로 준비할 때부터 그리고 이곳에 도착해서 각자 훈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태권도와 한국어 교육을 통한 선교를 고민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조금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신용운 선교사님은 10월경 교회 근처에서 TIA 센터를 시작할 예정이고 아내는 기독교 방송국(HCJB)내에 있는 선교단체 사무실에서 ACE교육원(한국어교육원)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용운 선교사님은 태권도를 통해 제자훈련을 시키고 또 어린이들을 전도할 예정이고 아내는 ACE 교육원을 통해서 청년들을 만나고 궁극적으로 기도모임을 만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장소와 최소한의 환경에서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어 내고 청년들을 만나는 귀한



파송교회: 광복교회(도서선교회) 파송단체: 한국해외선교회(GMP)

연 락 처: 070 -4067-2491/ obit92@hanmail.net

사역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초청과 기회들 그리고 소통



<현지단체에서의 강의들>

지난 몇 달간 현지선교단체에서 강의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두 곳의 선교단체에서 선교에 관련된 강의를 했고 또 기독교방송국(HCJB)에서 라디오 프로그 램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첫 강의는 설레고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을 접하면서 조금 더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혹시 오게 될 젊은 세대 선교사님 들의 길이 또 열리게 되고 현지 단체와 소 통의 길이 더 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제목

- 블랑카 선교사님을 통해 소망교회와 저희 가정이 위로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수아가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에 감사드립니다.
- 3. 신용운 선교사의 태권도 사역과 고상희 선교사의 문화원 사역의 길을 열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제목

- 1. 소망교회의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잘 준비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잘 잡아가도록
 2. 신용운, 김계림, 고상희 선교사들 통해서 태권도와 문화원 사역을 잘 준비하도록
 3. 가족 모두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4. 양가 어머님들의 건강을 돌보시고 특히고상희 선교사 어머님이 몸이 불편해지시는데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 5. 파송교회, 협력교회 그리고 동역자들의 삶을 지켜주시도록